

“새 산업지도 그리기 위해 노력, 모든 열정 쏟을 것”

송하진 도지사는 29일 민선 7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전북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송 지사는 “그간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남은 기간에도 이를 위해 모든 열정을 쏟겠다”며 2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먼저, 기존 주력 산업에 대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려 나가는 방침이다.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수소차 중심의 친환경 모빌리티산업에 집중 육성하고, 조선산업은 중소형·특수선 중심의 친환경 스마트선박산업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생명산업의 경우 식품, 종자, 미생물, 첨단농업 등 다양한 분야로 새롭게 변화시켜 전북을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로 키워나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평가받는 바이오산업도 농생명산업과 연계해 헬스케어, 신약, 화학, 에너지 등

송하진 도지사, 향후 추진 방향 제시

자동차·농생명 등 기존 주력산업 혁신 탄소·수소 등 산업화 초기 신산업 육성

으로 확대,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 산업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여행체험·휴양힐링 산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 3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을 개장했으며, 앞으로 문수산팬백(110억원), 지덕권 산림치유원(827억원), 새만금수목원(1,530억원) 등에 2,51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하진 도지사는 다른 하나는 이른바 프런티어(Frontier)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산업화 초기에 있는 신산업을 육성해 산업의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탄소산업, 수소산업, 재생에너지산

업, 홀로그램산업, ICT·SW산업, 금융산업 등을 그 예로 제시했다.

먼저, 탄소산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발한 산업이 국가산업으로 전환된 최초의 유일한 산업으로서 전북도와 지역 산업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된 것으로, 향후 정부의 탄소밸리 3단계 사업을 통해 에너지, 방산·우주, 모빌리티 등 다양한 신산업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소산업은 새만금에서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전주·완주는 수소활용도시로서 기업을 집적화하기 위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소산업 생태계를 더욱 촘촘히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산업은 세계 최대 규모



29일 민선7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송 지사.

의 수상태양광 발전단지 새만금에 조성될 예정으로, 국내 최초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특화기관 및 기업을 100개 이상 유치하면서 대한민국 그린 성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홀로그램산업은 전북도는 1,500억 원 규모의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

이 확정돼 추진 중이며, 익산에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를 개소해 기술개발과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XR(확장현실)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도 유치하는 등 활발하게 초·중·고 단계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CT·SW산업은 올해 1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북IT에 전북디지털융합센터를 개소했으며, SK컨소시엄의 2조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구축과 더불어 데이터센터 추가유치 및 연관산업 육성 등을 위한 새만금 데이터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자산운용 금융도시를 기반으로 한 금융산업 육성, 전주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남원 IX드론활용센터, 진안 드론실증도시 등 인프라를 활용한 드론산업 육성, 전북연구개발특구와 군산강소특구를 활용한 신산업분야 기술개발과 기술창업 활성화, 도심항공교통(K-UAM), 우주항공 로보 등 신산업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외국인 주민 다문화 지원협의회 개최

전북도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강성환 전주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장 등 당연직 위원 8명을 비롯해 다문화·외국인 분야 민간 전문위원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1년 전북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외국인 지원 주요사례 등을 함께 공유하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및 기관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의견 수렴해 ‘22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에 합의했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도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다”라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소외받지 않는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민주 대권주자들, 20대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의원과 중앙상황본부장 최인호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마련된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 접수 창구에 후보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사진 왼쪽) 김두관 의원도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김두관 의원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날 김 의원은 “근본적인 개혁 비전과 정책으로 관을 뒤집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4기 민주정부 출범, 자랑스런 나라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과 중앙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대선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경선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디디며 가슴이 떨리고 벅차오른다”는 첫 마디로 예비후보 등록 소감을 밝힌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던진 메시지를 통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정치인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일을 제가 하겠다. 힘겨운 국민과 청년을 따

뜻하게 보살피고,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고 대선 도전 이유를 피력했다.

그는 특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임을 이어 4기 민주정부를 출범 시키겠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민주당 정부 적분자로서의 책임감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오늘을 힘겹어하고 내일을 불안해하는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대선 슬로건이자 국가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정책으로 신복지와 중산중경제론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7월 5일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호상 기자

“근본적 개혁 비전·정책으로 관 뒤집을 것”

김두관 국회의원이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날 김 의원은 “근본적인 개혁 비전과 정책으로 관을 뒤집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지난 28일 정세균 이광재 후보 단일화 방침에 대해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고 의사를 피력한 만큼, 본인만의 경쟁력으로 예비경선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앞선다.

김두관 의원은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 영남 민주개혁진영의 골 계타가 되겠다”면서 “보수색이 짙은 영남에서 슬한 도전 끝에 승리를 이끌어내고 보수로 기울어졌던 정치지형을 바꾼 주역의 책임을 당원과 국민에게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불평등 타파와 개혁의 완성이라는 시

대정신을 구현할 인물이라면 국민들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후보 누구도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특히,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근본적 개혁의 비전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이 부분은 제 출마선언문에도 중요하게 언급될 것”이라며 “제가 이 부분을 전면에 내세워 이야기하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예비경선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경쟁하겠다”며 “민주당의 도전 개혁의 가치를 만들어낸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을 끝맺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오는 7월 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자치분권 강화 법안 의견 수렴

KDLC 전북 총회 개최 김승수 전주시장 등 지역 운영위 공동대표 선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전북지역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승수)가 지난 28일 오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북지역 총회를 열고 29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김승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한 100여명의 지역 운영위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KDLC는 지방자치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결성됐다. 위원들은 민주당 소속 시장 군수, 구청장과 광역 시·도의회 의원 기초 시·군·구의회 의원, 자치분권 등 의하는 일반 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KDLC 전북지역 정

관을 제정하고, 지역운영위원회 임원들을 선출했다. 전북 운영위원회의 공동대표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한 기초단체장 10명, 강동화 전북시군의회위원장, 박병설 전반기 전북시군의회위원장, 정진 민주당 전북도당 후원회장 등이 선출됐다. 또 민주당 소속 각 시군의회 의장과 이정민 최영규 김이재, 전진성 도의원은 운영위원으로, 전주시의회 김진욱 의원이 사무처장을 맡게 됐다.

총회에서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설명과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승수 준비위원장은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서로 조화를 이루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자치분권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대안이 될 것”이라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KDLC 전북지역회의 위원들과 연대해 제도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전북지역 준비위원회가 지난 28일 오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북지역 총회를 열고 29일 밝혔다.

문승우 도의원, 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군산4)이 29일 (사)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수여하는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문승우 위원장은 제11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매진하고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승우 위원장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도민을 위한 노력들이 인정받고 기쁘다”며 “수상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박용근 도의원, 전북 유니텍고 총동창회로부터 감사패

전북도의회 박용근(행정자치위원회, 장수)의원이 29일 전북유니텍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서홍석)로부터 전북유니텍고등학교의 발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날 수여식에서 전북유니텍고등학교 총동창회 측은 “형소 박용근 의원은 도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왔고, 특히 전북유니텍고등학교의 교명 변경 및 조리제빵과 신설 과정에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용근 의원은 “도내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당연한 일을 해왔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아 기쁜 동시에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고 전했다. /유호상 기자



고 밝혔다. 박용근 의원은 “도내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당연한 일을 해왔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아 기쁜 동시에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고 전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 이원택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28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이 행안부 특별교부세 28억원(김제 14억/부안 14억)을 확보했다. 김제·부안의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김제 원평집강소 주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5억, 금주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5억, 금주면 지방도(714호선) 3차 개선평가 6억,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사업 3억, 부안 반박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7억, 전라좌수영 세트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7억 등 총 28억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김제 원평집강소 주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동학농민혁명역사상징적 건물이자 전국 최초의 주민자치기구였던 원평집강소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안 반박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부안군에 5천여 명에 이르는 부안군내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원택 의원은 “28억 원에 이르는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김제·부안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